

[정보·과학]

이통업계 “수능생 잡아라”

모바일 수능채점·입시상담 등 서비스 ‘풍성’

이동통신 업체가 수능생 잡기에 나섰다.

수능 채점 및 분석 서비스=SK 텔레콤과 KTF·LG텔레콤은 수능이 치러진 16일 오후부터 '2007 모바일 수능채점 서비스'를 시작한다. SKT의 수능채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수능시험 전 EBS나 이투스 사이트(www.ebs.co.kr·www.etos.co.kr), 무선인터넷 네이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SKT는 채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수능채점서비스를 통해 가점점한 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능 일 바로 다음날에 가배치표를 보내준다.

KTF도 무선인터넷 매직엔 등을 통해 수능채점 서비스는 물론 채점 결과를 토대로 예상등급, 지원가능 대학 등을 알려주는 '수능 분석 결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이지아이를 통해 수능채점, 정시 경정률 속보(대학별·모집단위별 원서접수 현황), 합격자 발표 서비스(대학별·단

계별 합격자 발표), 모집요강(시종별·대학별·모집단위별 상세 모집요강), 입시뉴스(대학입학 관련 뉴스·정책자료), 전문가 입시상담(입시관련 개인별 고민 상담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트레스 해소 행사=KTF는 음악 포털 도시락(www.dosirak.com)에 접속해 수능 수험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 무료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며, 유료 전환 3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해당내용을 공지한다.

SKT는 14일부터 네이트를 통해 수험생과 수능관련 부가서비스를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MS, 내년 XP 후속 '윈도 비스타' 출시

컴퓨터 올해 살까? 말까?

김미연(여·31)씨는 지금 컴퓨터를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다. 김씨는 인터넷 검색을, 6살난 아들은 온라인 게임과 동영상 영영이 강의를 듣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운영체제(OS)인 '윈도 비스타'가 내년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탓에 망설이고 있는 것. 기껏 새 PC를 샀는데, 두 달 만에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체제가 구형이 돼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짝떨 수 밖에 없다.

PC를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윈도우 비스타 내년 출시=마이크로소프트(MS)는 새로운 윈도 운영체제(OS)인 윈도 비스타 출시 준비를 완료했으며 기업용은 이달 중, PC용은 내년 1월 30일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윈도 비스타는 그래픽 기능과 문서, 이미지 등 PC내에 있는 자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래픽사용환경(GUI)의 경우 3차원 화면으로 구성해 눈길을 끈다.

업체들, 로고 붙은PC엔 무료 업그레이드 XP 5년간 지원...“교체 필수 아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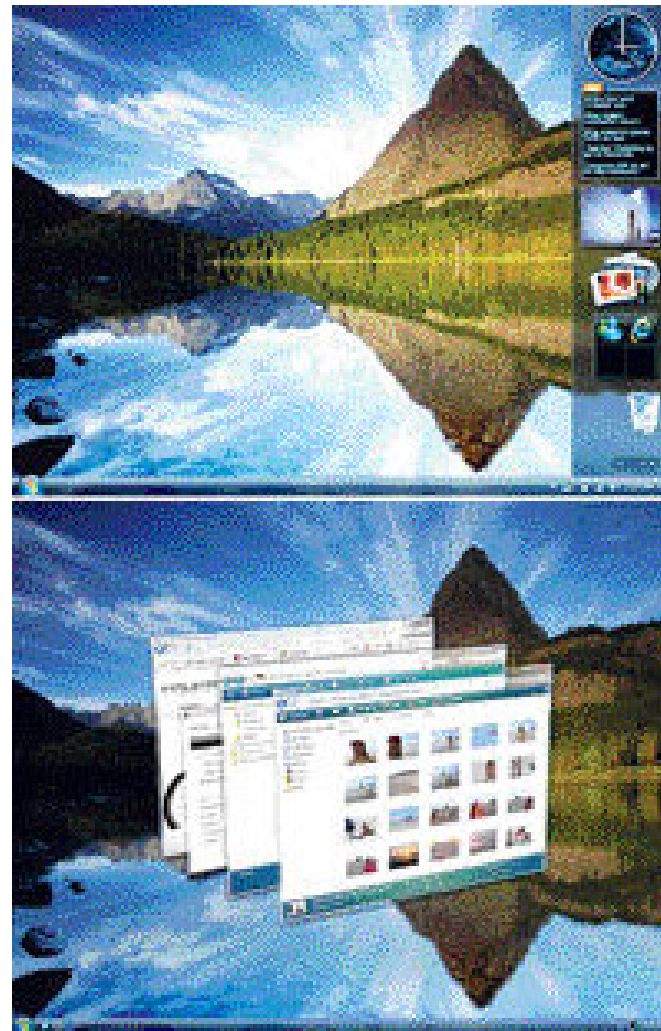
아이콘도 3차원일 뿐만 아니라 작업창도 현재 직사각형 모양에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했다.

리모컨을 사용하여 PC에 저장된 영화·음악 등 동영상 파일을 TV에서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센터 기능도 있다. 이와 함께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도 XP에 비해 빠르고, 새로운 인터넷 브라우저도 탑재돼 있다. 안전성과 보안도 강화됐고 피싱 사기에 대한 대책 기능도 있다.

평범한 사용자라면 XP도 충분=우선 게임, 인터넷 검색, 동영상 등 일반적 용도로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윈도XP도 충분하다. 윈도 XP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비스타에서도 작동된다. 윈도 비스타 프로그램만 따로 사려고 하면 2만원 정도가 더 드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용자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MS도 향후 5년간 윈도XP에 대한 보안패치 등 업데이트 지원을 계속한다. 이 때문에 극히 평범한 개인 유저를 끌어당길 매력적인 기능이 있어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왔다고 무조건 구입하는 것보다 1~2년 윈도 XP를 더 쓴 뒤 비스타로 바꿀지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꼭 사용하고 싶다면=비스타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컴퓨터 사양을 점검해야 한다. 원활하게 돌려면 3GHz CPU에 2GB 램, 128MB 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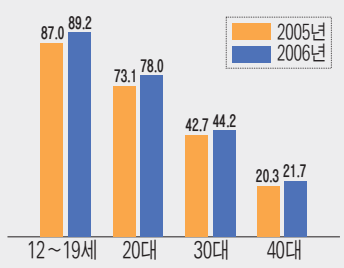


을 갖춘 그래픽 카드, DVD롬, 하드 드라이브 40GB(15GB의 여유 공간 포함)등을 갖춰야 한다.

PC 업체의 무상 업그레이드 행사를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MS는 내년 3월 15일까지 '비스타 사용 가능 (Windows Vista Capable)'로고 붙은 PC를 구입하면 비스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대형 PC제조업체들은 윈도XP 제품 중 하나인 '윈도 미디어센터 에디션(WMC)'이 탑재된 제품에 대해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실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령별 무선인터넷 이용률(%)



“무선 인터넷 요금 불만 크다” 이용자 94% “인하” 요구

무선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또 이들은 얼마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무엇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의 만 12세 이상 휴대전화 보유자 3천8명을 대상으로 무선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19세의 이용률이 89.2%로 가장 높았다. 20대는 78% (전년대비 4.9%p 증가), 30대 44.2% (전년대비 1.5%p 증가), 40대 21.7% (전년대비 1.4%p 증가), 50세 이상 7.2% (전년대비 1.1%p 증가) 순이었다.

무선인터넷 이용 시간과 횟수는 주 평균 48.2분과 6.7회로 조사됐고, 성별로는 남성의 무선인터넷 이용(50분·6.8회)이 여성(46.1분·6.7회)보다 많았다. 이용자들의 평균 요금은 월 7천원으로, 이동전화 이용 요금의 13.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이용자의 무선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2.8점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는 이용 요금에 대한 만족도가 2.2점으로 가장 낮았고, 초기 접속 및 전송속도(2.9점), 정보검색·메뉴조작 편리성(2.9점)은 보통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용자들의 93.6%가 이용요금 인하를 꼽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영상UCC 80% 불법 복제

83%가 저작권 침해물

새로운 인터넷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UCC(User Created Content)의 80% 이상이 불법 복제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10개 UCC 전문 포털을 조사한 결과, 지난 달 16일 현재 유통되는 UCC 중 83.5%가 저작권 침해물이었다

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물은 7월27일 첫 조사에서 92.4%였다. 이후 8월8일 80.8%, 8월25일 81.5%, 9월15일 80.9%, 9월29일 83.3%로 조사됐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중 조사대상 콘텐츠 4천500개 가운데 순수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약 16%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불법적 편집물이나 복제물이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Movie advertisements for Megabox and Columbus Cinema, listing various films and showtime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Cheonwon, Gimbudong, Minyeon, and others,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